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적응유형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 혜 립** · 조 민 효***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 한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2,010명)의 적응유형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은 동화유형, 분리유형, 주변화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동화유형에 속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주변화집단에 속한 여성보다 취업 할 승산비가 5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는 모임(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로 측정하였으며, 분석결과 지역주민모임에 참여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 할 승산비가 51%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에 따른 취업효과에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적응유형, 사회자본, 군집분석, 이항로지분석

I. 서론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던 우리사회는 2000년을 기점으로 국제결혼유입인구 및 다문화가족 등의 증가로 정주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외국인 아내와 결혼률은 2.09%에서 9.77%로 급증 하였다. 이는 2000년 무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 (NRF-2013S1A3A2055042).

본 논문은 이해림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부교수

렵 부터 약 25%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소라미, 2007: 234).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지원의 법적 근거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사회통합유형으로써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는 외국인을 국민으로 인정하여 시민권을 부여하고, 주류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활동 시 내국인들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등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와 달리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i.e., 언어, 전통 등)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Castles & Miller, 2003). 하지만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다문화 지원’이라 명명하지만 동화주의에 더 가까운 성향을 보이고 있다(김경아, 2012: 405; 박진경, 2010: 179-181; 윤인진, 2008: 72).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한 제한 외국인에 한하여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하고 귀화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으나 제한 외국인의 고유한 문화를 우리사회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은 동화주의에 가깝다고 판단 할 수 있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은 2009년 조사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전기택 외, 2013: 321). 이는 우리정부가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의 근거법을 마련한 이후, 가장 우선시 한 부분 중 하나였던 한국어 교육 지원정책의 긍정적인 성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지원 정책은 한국어 능력을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적응 및 한국 사회로의 통합에 필수적인 요소로 본 정부 및 전문가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어 능력이 수반되어야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학습이 용이하고, 취업관련 기술 및 자격증 획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어 능력은 한국사회에 적응을 돕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혜원 외, 2010: 50).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은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다(배경희·김석준, 2012: 16; 박재규, 2013: 23; 양인숙·김선훈, 2011: 253-255).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이 집단 내에서 다양화 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집단 내에 다양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이 존재한다면, 상이한 적응유형에 따라 취업상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흐름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수준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Berry(1997)가 제시한 동화전략모델(assimilation strategies model)을 원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더 높은 수준의 적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

의 적응유형과 취업의 관계를 분석한다. 동화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주자가 이주 수용국가의 주류사회에 완전하게 편입되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오르는 것이므로 이주의 맥락에서 이주자의 취업은 중요하다(Alba & Nee, 1997: 829-832). 결혼 이주여성에게 취업이란 단순한 생계수단의 의미를 넘어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어 갈 수 있는 매개이다(김효순, 2013: 349-351; 박미은·신희정·이미림, 2012: 213; 배경희·김석준, 2012: 6-7). 취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정책 인지도, 지역사회 다문화태도, 적절한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인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 등이 있다(김경아, 2012: 403; 김병숙·안윤정·송혜령, 2010: 235; 박재규, 2013: 27; 양인숙·김선훈, 2011: 237).

본 논문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분석대상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거리가 먼 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일수록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식습관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양식이 본국과는 판이하게 달라 일부의 경우에는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어려움으로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황지연 외, 2010: 779). 둘째, 우리나라와 함께 유교문화권에 속해있는 조선족(32.1%), 중국(21.2%)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하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18.3%)이 비유교문화권 출신 여성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전체 표본 중 38% 가량이 동남아권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가 주목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이들의 적응 과정과 결과를 대표하는 표본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적응유형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본 연구 결과가 전체 동남아권 결혼이주여성의 현황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다고 여겨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통합정책과 동화주의

Castles & Miller(2003)는 국민을 규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의 사회통합정책 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차별적 배제모델에서는 종족성을 기준으로 국민을 규정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정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동화주의 모델에서 국민은 정치적 공동체로써 이주자들은 이민 수용국가의 규범을 준수하고 주류문화에 적응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민 수용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다. 셋째, 다문화주의 모델에서는 이주자들이 이민 수용국가의 법·제도를 준수하면 국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동화주의 모델은 이주민에게 주류사회 문화에 적응(adaptation)할 것을 요구하며 이주민 집단의 적응을 통해 국가정체성 확립 및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문화적응은 주류사회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옷 입는 방식,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와 정도가 존재한다(Alba & Nee, 1997: 829-832). Alba & Nee(1997)가 말하는 적응유형은 문화적응과 구조적 적응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이주자는 주류사회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학습을 통해 문화적응을 이루는 한편 이주 수용국가의 정치·경제적 구조에 진입하여 사회에 구조적으로도 적응 한 상태를 이상적인 적응유형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반드시 문화적응이 구조적 적응의 선행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사회의 중국인 이민자 사례를 보면, 그들은 미국사회에 구조적으로 적응한 결과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미국사회 문화적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중국 민족공동체 내에서 고유한 중국문화를 고수하는 단계에 정체되어 있다(한승준, 2008: 105). 이와 같은 맥락에서 Berry(1997)는 이민자들이 크게 네 가지 적응유형(i.e.,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통합유형은 이주민 집단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주 수용국가의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동화유형은 이주민이 본인에게 배태된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버리고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이다. 셋째, 분리유형의 이주민은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기 원하고 주류사회와 접촉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주변화유형의 이주민 집단은 민족적 특징을 고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희망하지 않는다.

적응유형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이주자가 취하는 적응유형은 이주자에 대한 이주 수용국가의 입장과 이주자 개인의 적응 태도가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Berry(1997)의 문화적응전략모델을 원용하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유형을 실증분석 한다. 이주자는 문화적응과 구조적 적응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에 따라 네 개의 적응유형을 아래 <그림 1>과 같이 취할 수 있다.

〈그림 1〉 적응유형

		구조적 적응	
		주류사회와 관계 할 가치가 있는가?	
문화적응 이주자의 정체성 및 특성을 유지 할 가치가 있는가?	Yes	통합 Integration	분리 Separation
	No	동화 Assimil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

출처: Berry(1997) pp. 10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내재된 자본이다(Coleman, 1988: S98; Kao, 2004: 172).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회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주로 사회자본이 없다면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경제자본, 문화자본, 인적자본과 동등하게 생산적인 기능을 가진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Svendsen & Svendsen, 2003). Coleman은 사회자본이 사람들의 관계 내에서 기대와 의무, 정보채널, 사회적 규범의 형태로 존재하고 각 유형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질(quality of relationship)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Coleman은 네트워크의 폐쇄성(closed network)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폐쇄적인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순기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Granovetter(1973)와 Burt(1997)는 네트워크의 연대가 약한 지점(weak ties)에서 오히려 이질적인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열(structure holes)이 발생하고 새로운 자원(i.e., 지식, 정보, 기회 등)이 네트워크 내부로 유입되어 결국 네트워크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ranovetter의 연구는 보스턴 일대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직에 약한 연대가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지만, 비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Field et al.(2000)와 Horvat et al.(2003)은 사회적 계층에 따라 네트워크의 기능과 효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Field와 동료들은 연구에서 학습장애를 가진 저소득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호혜성 원칙이 거의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보다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과의 관계에 의존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Horvat와 동료들은 학부모들이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녀들의 학

교생활에 행사하는 영향력의 유형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노동자 계층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를 개인화하고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중산층 이상 계층에 속한 부모들은 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제를 공론화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자 계층이 가진 네트워크의 기능은 생활의 어려움(i.e., 월세 및 생필품을 서로 빌려주는 것 등)을 돕거나 정서적 지지에 그치고 있지만, 중산층 이상 계층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 및 교육에 대한 정보 등을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주로 저소득 계층에 속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보유한 사회자본 요소 중 네트워크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이민은 전통적 이민국가의 이민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첫째, 우리나라의 이민은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개인단위로 발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은 고국의 가족사회자본과 지역사회자본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한국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적응과정까지 동시에 경험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다. 둘째, 다수의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주네트워크는 이주자의 본국과 이주국가의 친척, 친구, 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된 결사체로써 이주민들이 생경한 이주 수용국가의 사회문화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한다(Massey et al., 2003: 18-21).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은 사회자본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국내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낮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된다.¹⁾ 배우자와 한국가족들로 구성된 가족 네트워크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이며 가족 외부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에 속해있는 배우자²⁾ 및 한국가족이 양질의 정보와 기회(i.e., 취업 등)가 교환되는 네트워크에 결혼이주여성을 연결시키는 역할(bridges)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실,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활동함으로써 연결·확장된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 정보 및 기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네트워크는 모국인 친구 모임, 지역 주민 모임, 봉사·취미활동모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계약을 맺음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정의에 의해 이주 네트워크라고 볼 수 없다.

2)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수강자 중 일용노동자·무직·파산자 비율 : 17.3%(7,455명/42,543명)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14.02.06.))

3. 취업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할 때 이민자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에 기혼여성으로서 취업한다는 점에서는 내국인 기혼 여성의 취업에 관한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기혼여성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요인(i.e., 연령, 자녀의 수, 자녀의 출산 간격), 인적자본 요인(i.e., 학력, 경력, 임금), 가족구조 요인(i.e.,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가족 및 친인척 유무), 경제적 요인(i.e., 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총 소득), 노동시장환경 요인(i.e., 거주지역의 경제적 특성, 제도적 특성) 등이 있다(김경아, 2012: 386; 김은정, 2013: 182-183; 김지경·조유현, 2003: 192; 박미은 외, 2012: 218-220; 박재규, 2013: 20-23; 양인숙·김선헌, 2011: 242-244).

내국인 여성 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수는 여성의 취업에 부(-)의 영향을 주지만 자녀를 돌 볼 수 있는 가족 및 친척의 유무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13: 186-187). 가계소득은 낮을수록 여성의 취업에 부(-)의 영향을 준다(김지경·조유현, 2003: 196).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계소득을 남편의 소득으로만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맞벌이 부부일수록 가계소득이 높게 측정된다. 일반적으로 학력, 경력과 같은 인적자본 요인과 지역의 경제활동 활성화 정도 및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유무와 같은 노동시장환경 요인은 여성 취업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아, 2012: 403-404; 김은정, 2013: 188). 실제로 고혜원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미취업 이유는 자녀양육(50.7%), 미숙한 한국어 구사능력(13.1%),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9.2%), 집안일을 돌 볼 사람이 없어서(6.5%)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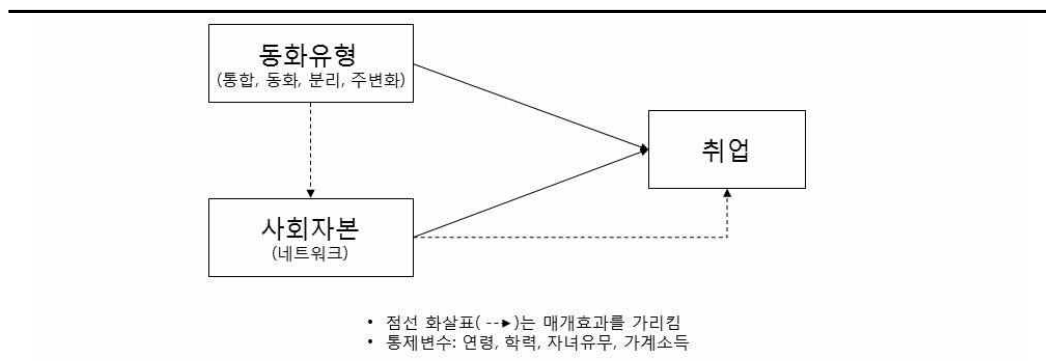
직장생활은 단순한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자아실현의 수단인 직업을 통해 개인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경험하고 업무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한다(김효순, 2013: 329). 또한 네트워크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 지지를 얻고 취업, 교육, 생활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의 유익한 기능은 결혼이주여성의 맥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국민의 배우자로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취업은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일 것이다. 더하여 직장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II.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본 연구는 “1)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2) 적응유형의 차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취업효과에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지역사회에서 구축하는 네트워크가 활용 가능한 자본으로써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3)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네트워크)은 취업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정보가 교환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인 네트워크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적응과정 중에 경험하는 문화적응과 구조적 적응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한다(Granovetter, 1973: 1360). 즉, 문화적응을 한 결혼이주여성이 취업과 같은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정단계의 적응수준에 도달하고 한국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하더라도 취업으로의 이행과정을 매개해 줄 외부세계와 연결이 부족하다면 취업은 힘들 수도 있다. 따라서 “4) 사회자본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에 따른 취업효과를 매개하는가?”라는 마지막 연구 질문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네 가지 연구 질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그림 2> 연구모형



2.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취업여부이다. 먼저 취업상태 변수는 경제활동 여부를 묻는 실태조

사 설문지 20번 문항³⁾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더미변수(1=취업, 0=미취업)로 조작하였다.

독립변수인 적응유형은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유형(i.e.,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으로 구성하며 분석을 위해 문화적응과 구조적 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한다(Berry, 1997). 먼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써 민족 정체성, 심리적 적응, 언어능력, 가족관계 만족도를 사용한다. 민족 정체성은 이주자 개인이 적응과정을 경험하면서 인식하는 사회적 소속감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이주자의 민족정체성이 한국인으로써든 외국인으로써든 확실하게 형성될수록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한다(Phinney, 1991). 본 연구는 이민자의 민족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민족 정체성 지표를 사용한 Phinney(1991: 193)의 연구에 근거하여 실태조사 설문지 15번 문항 동화수용 필요성⁴⁾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5점 척도(i.e.,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약간/별로 그렇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적응은 생활만족도를 통해 측정한다.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선택한 삶에 대한 만족을 인지하는 과정으로써,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결정한 베트남 출신 여성은 한국사회에 적응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Diener et al., 1985).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생활 만족도를 묻는 실태조사 29번 문항⁵⁾을 사용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i.e.,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로 조작하였다.

언어능력은 이주 수용국가의 전반적인 사회문화를 학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문화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한다(Vidgor, 2008). 한국어 사용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각 영역에 대하여 얼마나 유창하게 구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5점 척도(i.e., 1=매우 못한다, 2=못한다, 3=보통이다, 4=잘한다, 5=매우 잘한다)로 응답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문화적응 유형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Nguyern & Williams, 1989; Portes & Rumbaut, 2003). 왜냐하면 이민자 가족 내 부모-자식 간 문화적응 속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부모-자식 간에 선호하는 문화 성향이 다르면 갈등이 빚어지고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3) “지난 1주일(2012.7.1. - 7.7.)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한 경우도 ‘일하였다’에 해당 됨)

4)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본인 고유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와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5)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당신은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를 묻는 실태조사 설문지 6-1번 문항으로 가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i.e.,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로 구성하였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수준이 높아 부부의 문화적 이견이 낮은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구조적 적응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인식한 차별 경험, 사회문화적응, 친구 변수를 활용한다. 이주자가 인식하는 차별은 적응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Portes & Rumbaut, 2003). 인식한 차별경험은 지역사회가 이주자를 대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지역사회의 태도에 따라 이주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응에 필요한 기회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는지 물어보는 설문지 16번 문항⁶⁾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더미변수(1=있다, 0=없다)로 조작하였다.

사회문화적응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자가 한국사회에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모두 적응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써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실태조사 설문지 12번을 사용하였다.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 제시된 선택지에는 외로움, 가족 간의 갈등, 언어문제, 문화차이(i.e., 생활 방식·관습), 음식, 자녀 양육 및 교육, 은행·법원 등 기관 이용, 경제적 어려움, 편견과 차별, 기후 차이, 그리고 기타가 있었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이상 응답한 경우는 “1”로 조작하였고,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0”으로 조작하였다.

친구는 이주자가 주로 누구와 접촉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변수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주자는 이주 수용국가에 적응수준이 높을수록 내국인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내국인과 가깝게 지낼수록 취업 가능성은 높게 나타난다(Berry et al., 2006: 313-316; Kanas et al., 2011: 95).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주로 누구와 접촉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13번 문항을 한국인 친구 인덱스 변수로 조작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 네 가지 특정한 상황에서 주로 누구와 상의하는지 응답하였다: 첫째,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둘째, “일자리와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넷째, “여가나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각 질문에 대한 선택지에는 모국인, 한국인, 외국인, 아무도 없음이 제시되었다. 네 가지 상황에서 누구와 주로 의논하는지에 대해 응답한 13번 문항을 인덱스 변수(index variables)로 조작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응답결과 중 각 상황에서 한국인과 상의한다고 대답한 경우 1의 값을 지정하고, 그 외 답변은 0으로 코딩한다. 그리고 변수를 모두 더해 0부터 4의 값을 가지는 “한국인 친구(index_kor)변수”를 새롭게 만든다.

본 연구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과 취업의 관계에 사회자본 매개효과가

6)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표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변수		측정			출처	
		문항	질문	척도		
종속변수						
	취업	취업여부	Q20	취업경험 여부	1=있음, 0=없음	
독립변수						
적응 유형	민족 정체성	Q15	동화수용 필요성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약간/별로 그렇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Phinney (1991)	
	심리적적응	Q29	생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Diener et al. (1985)	
	언어능력	Q27-1	한국어 실력: 말하기	1=매우 못한다 2=못한다, 3=보통이다 4=잘한다, 5=매우 잘한다	Vidgor (2008)	
		Q27-2	한국어 실력: 듣기			
		Q27-3	한국어 실력: 읽기			
		Q27-4	한국어 실력: 쓰기			
	가족관계 만족도	Q6-1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Nguyern & Williams, (1989) Portes & Rumbaut (2003)	
	인식한 차별 경험	Q16	사회적 차별 경험	1=있음, 0=없음	Portes & Rumbaut (2003)	
사회문화 적응	Q12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	1=있음, 0=없음			
친구	Q13	한국친구 인덱스 변수	0=없음, 1=한 가지 상황 2=두 가지 상황 3=세 가지 상황 4=네 가지 상황	Berry et al. (2006) Kanas et al. (2011)		
매개변수						
사회 자본	네트워크	Q14-2	참여: 모국인 친구 모임	1=참석, 0=불참		
		Q14-3	참여: 지역주민모임	1=참석, 0=불참		
		Q14-4	참여: 봉사·취미활동	1=참석, 0=불참		
통제변수						
연령	20대, 30대, 40대 이상				더미변수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				더미변수	
자녀유무					1=있음, 0=없음	
가계소득	50만원 ↓, 100만원 대, 200만원 대, 300만원 대, 400만원 대, 500만원 대, 500만원 ↑				더미변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보유한 사회자본 요소 중 네트워크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모국

인 친구 모임(14-2번), 지역 주민 모임(14-3번), 봉사·취미활동모임(14-4번)을 네트워크 변수로 사용한다. 한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97.75%가 자녀가 없거나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부모 모임(14-1번)은 네트워크 측정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여성의 취업과 적응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연령, 가계소득 등은 더미변수로 조작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한다(김은정, 2013: 185; 김지경·조유현, 2003: 190; 유민이 외, 2013). 기혼 여성의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자녀의 유무 더미변수, 최종학력 더미변수(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 졸업), 가계소득 더미변수(50만원 미만, 50만원-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유민이 외, 2013).

3. 자료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779호) 원자료를 사용하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표본조사로 실시된 실태조사의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으로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와 조사대상자의 자기기입식 방법이 병행되었고, 각 가구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다.

연구의 표본은 20세 이상 55세 미만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2,010명으로 이들 모두 취업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로 가정한다. 응답에 결측치는 없으며, 응답자의 특성은 <표 3>에 요약하였다.

4. 분석방법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TATA 11.0을 사용한다. 먼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여 응답자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둘째, 독립변수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을 구성하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 analysis)을 실시한다. 셋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로짓분석(logi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표 3〉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1,563	77.7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597	79.45
	30대	390	19.40		9세 미만	1,561	97.75
	40대 이상	57	2.84		9세 이상	36	2.25
학력	초등학교 이하	287	14.28	거주 지역	자녀 없음	413	20.55
	중학교	800	39.80		서울	152	7.56
	고등학교	818	40.70		부산	106	5.27
	대학교 이상	105	5.22		대구	71	3.53
거주 기간	3년 이하	286	14.23		인천	73	3.63
	4년 - 5년	569	28.31		광주	39	1.94
	6년 - 10년	1,050	52.24		대전	38	1.89
	10년 이상	105	5.22		울산	63	3.13
비자 유형	귀화	592	29.45		경기	378	18.81
	영주권(F-5)	50	2.49		강원	88	4.38
	결혼이주(F-2)	1,074	53.43		충북	94	3.68
	기타	294	14.63		충남	159	7.91
소득	50만원 미만	48	2.39		전북	137	6.82
	50-100 만원	137	6.82		전남	145	7.21
	100-200 만원	721	35.87		경북	215	10.70
	200-300 만원	749	37.26		경남	213	10.60
	300-400 만원	245	12.19		제주	39	1.94
	400-500 만원	64	3.18		총계	2,010	100.00
	500만원 이상	46	2.29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분석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특성은 〈표 4〉에 요약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에 살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와 관습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e., 평균 4.05, 범위 1 - 5). 한국어 실력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은 매우 못한다(1)에서 매우 잘한다(5)까지 주어진 다섯 개의 범위에 대해 자기기입식으로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말하기(2.88), 듣기(3.01), 읽기(2.87), 쓰기(2.60) 능력은 보통 또는 보통에서 약간 떨어지는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체적으로 만족(i.e., 평균 4.08, 범위 1 - 5)하고 있으며 한국생활에 외로움이나 문화·언어 등의 어려움(i.e., 평균 0.49, 범위 0 - 1)은 있지만,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보통 이상으로 만족(i.e., 평균 3.75, 범위 1 -5)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인 친구 인덱스 변수 평균값이 4에 가까울수록 적응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인 친구 인덱스 변수의 평균값은 1.08에 그치고 있다. 즉, 생활 속에서 최소한 한 가지 경우는 한국인 친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기술분석

변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평균	표준편차
적응유형			
	동화수용 필요성	4.0562	.8527
	한국어 실력: 말하기	2.8811	.9141
	한국어 실력: 듣기	3.0104	.9260
	한국어 실력: 읽기	2.8701	1.0188
	한국어 실력: 쓰기	2.6045	1.0029
	배우자와 관계 만족도	4.0776	1.0325
	사회적 차별 경험	.3463	.4759
	생활 만족도	3.7473	.9305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	.0498	.2175
	친구 인덱스 변수	1.0831	1.3414
사회자본			
	모국인 친구 모임	.1259	.3318
	지역주민모임	.6308	.4827
	봉사·취미활동	.1045	.3060
통제변수			
연령	20대	.7776	.4160
	30대	.1940	.3956
	40대 이상	.2055	.4041
학력	초등학교 이하	.1428	.3499
	중학교	.3980	.4896
	고등학교	.4070	.4914
	대학교 이상	.0522	.2226
자녀 유무	있음	.7945	.4041
	없음	.0284	.4041
	50만원 미만	.0239	.1527
월 평균 가계소득	50-100만원	.0682	.2521
	100-200만원	.3587	.4797
	200-300만원	.3726	.4836
	300-400만원	.1219	.3272
	400-500만원	.0318	.1756
	500만원 이상	.0229	.1496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역주민모임에 매우 활발하게 참석(0.6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국인 친구모임(0.13)과 봉사·취미활동 모임(0.10) 참여는 저조했다. 한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20대(0.78)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학교까지 마친 여성들의 그룹(0.40)과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마친 여성들의 그룹(0.40)이 비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학력상태를 가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0.80)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으며, 과반수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가정(0.72)은 월평균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군집분석

1) 주성분 분석

독립변수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에서 도출한 10개의 변수들은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변수들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공통요인을 추출하여 자료를 범주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몇 개의 적응유형으로 나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적응유형 수 결정을 위한 주성분 분석

요인	고유값	최대거리 차이	비율	누적 백분율
요인 1	3.0465	1.4349	.3046	.3046
요인 2	1.6115	.5959	.1612	.4658
요인 3	1.0155	.0248	.1016	.5673
요인 4	.9907	.0473	.0991	.6664
요인 5	.9434	.0729	.0943	.7608
요인 6	.8705	.2458	.0870	.8478
요인 7	.6246	.1178	.0625	.9103
요인 8	.5068	.2811	.0507	.9609
요인 9	.2256	.0607	.0226	.9835
요인 10	.1649	.	.0165	1.0000

주성분 분석결과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인 요인은 세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신뢰도: 0.647). 즉,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은 집단 내부에서 이질성을 보이지

만, Berry(1997)가 제시한 이론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주성분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한 K-평균 군집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2) K-평균 군집분석

주성분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한 K-평균 군집분석 결과 세 개의 적응유형을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도출된 세 개의 결혼이주여성 적응유형 중 27.66%를 차지한 집단은 동화유형, 39.65%를 차지한 집단은 분리유형, 32.69%를 차지한 집단은 주변화유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6〉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 Method)

		적응유형			전체
		동화	분리	주변화	
빈도(명)		556	797	657	2,010
비율(%)		27.66	39.65	32.69	100
문화정체성	동화수용 필요성	4.0594	4.1054	3.9939	4.0562
심리적 적응	생활 만족도	3.8453	3.7742	3.6317	3.7473
언어능력	한국어 말하기 능력	3.2680	3.2660	2.0868	2.8811
	한국어 듣기 능력	3.4209	3.4040	2.1857	3.0104
	한국어 읽기 능력	3.2824	3.4304	1.8417	2.8701
	한국어 쓰기 능력	3.0036	3.0979	1.6682	2.6045
가족관계	배우자와 관계 만족도	4.1817	4.0853	3.9802	4.0776
사회적 차별 경험		0.3525	0.3011	0.3957	0.3463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		0.0576	0.0678	0.0213	0.0498
한국친구 인덱스 변수		2.9083	0.2484	0.5510	1.0831

*셀 안에 제시된 숫자는 평균값

동화유형은 전체 2,010명 중 556명이 해당한다. 이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 문화나 관습에 따라야한다는데 평균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국어 구사능력은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객관적으로는 보통 보다 약간 우수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관계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사회적으로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유형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집안이나 개인적인 일로 상담

7) 크로바흐 알파계수의 신뢰도는 0.8이상이면 매우 강한 일관성을 의미하며, 0.6이상이면 수용가능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

이 필요한 경우 주로 한국인 친구들과 접촉을 통해서 정보, 기회, 감정적 지지 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두 유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생활에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유형은 797명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속해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 문화나 관습에 따라야 한다는데 가장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동화유형과 유사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미세한 차이로 읽기, 쓰기, 듣기 영역에서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와 관계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는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지만 본인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다고 여기는 경우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이외의 한국인들과 교류는 거의 없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언어능력과 같이 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적응하고 있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표 7〉 각 적응유형 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적응유형			χ^2
			동화	분리	주변화	
사회자본						
	모국인 친구 모임		.6331	.6374	.6210	$\chi^2 = 34.57$ $df = 6$ $p < .001$
	지역주민모임		.1547	.1292	.0974	
	봉사·취미활동		.1529	.1092	.0578	
통제변수						
연령	20대		.7752	.8005	.7519	-
	30대		.1978	.1807	.2070	
	40대 이상		.0269	.0188	.0411	
학력	초등학교 이하		.1025	.1217	.2024	$\chi^2 = 35.85$ $df = 6$ $p < .001$
	중학교		.4011	.3902	.4049	
	고등학교		.4388	.4279	.3546	
자녀 유무	대학교 이상		.0576	.0602	.0380	$\chi^2 = 112.06$ $df = 2$ $p < .001$
	있음		.9028	.8256	.6651	
	없음		.0971	.1744	.3349	
월 평균 가계소득	50만원 미만		.0288	.0226	.0213	$\chi^2 = 26.47$ $df = 16$ $p < .05$
	50-100만원		.0486	.0665	.0868	
	100-200만원		.3525	.3400	.3866	
	200-300만원		.3741	.3789	.3638	
	300-400만원		.1439	.1242	.1005	
	400-500만원		.0288	.0427	.0213	
	500만원 이상		.0234	.0251	.0198	

주변화유형은 657명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해당한다. 한국 문화와 관습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보통 이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편, 한국어 구사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관계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역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은 거의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세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인 친구들과의 만남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세 개의 적응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집단 내에서 분류된 군집은 군집들 간에는 이질성을 띠지만, 군집 내부는 동질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에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집단에 나타난 세 가지 적응유형(i.e., 동화, 분리, 주변화)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검정결과 각 유형 간 사회자본 변수($\chi^2 = 34.57, df = 6, p < .001$), 학력 변수($\chi^2 = 35.85, df = 6, p < .001$), 자녀 변수($\chi^2 = 112.06, df = 2, p < .001$), 월 평균 가계소득 변수($\chi^2 = 26.47, df = 16,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적응유형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7>에 정리하였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이 이론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주요한 이유는 동화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김경아, 2012: 405). 우리사회는 결혼이주여성이 그들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유지한 채 취업과 같은 사회참여 활동을 하기에 척박한 환경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각 주(states)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민족이 그들 민족의 큰 명절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국의 중추절에 중국계 미국인 학생들이 민족고유의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맥락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자국의 국경일인 남부해방기념일(4월 30일), 국제노동절(5월 1일), 개국기념일(9월 2일) 등을 기념하며 쉬는 것은 녹녹치 않다. 오히려 동화주의를 견지한 우리사회는 그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알고 기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환경적 맥락아래에서 통합유형의 성격을 띤 적응유형이 형성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이 본 연구의 적응유형 분류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분석결과 도출한 동화, 분리, 주변화유형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Berry (1997)가 제시한 동화유형, 분리유형, 주변화유형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동화유형 여성들은 한국어 구사능력과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높았고 생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하여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의 일을 주로 가족 외의 한국친구들과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으

로 미루어봤을 때 동화유형에 속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문화적응이 된 상태에서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분리유형은 한국사회 문화적응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동화유형과 유사하지만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족을 제외한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가 없다. 일정 수준의 문화적응을 했지만 사회참여를 원하지 않는 분리유형의 특성과 일치한다. 주변화유형은 문화적응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한국어 구사능력이 매우 낮고 전반적인 한국생활 만족도 역시 낮은 유형이다. 그들도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족을 제외한 한국친구들과 교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문화적응 수준이 매우 낮고, 또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낮은 주변화유형의 특징이 반영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항로지분석 결과

1)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과 취업효과

이항로지분석을 통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동화유형에 속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주변화유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취업효과($p<0.001$)가 있었다. 즉, 동화유형에 포함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주변화유형의 여성들에 비해 취업할 승산비가 54%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시켜 분석한 모형의 경우에도 동화유형에 속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효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p<0.001$)하였다. 오히려 통제변수를 포함시키고 나서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승산비: 1.54 → 1.74). 한편 연령(i.e., 20대, 30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자녀 유무는 취업에 부(-)의 영향을, 가계소득은 모든 소득구간이 취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낮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가 없는 여성과 비교했을 때 취업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소득은 모든 구간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자들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만원 - 300만원 구간, 300만원 - 400만원 구간, 400만원 - 500만원 구간에 속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효과는 최소구간 (50만원 미만)에 비해 통계적으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p<0.001$).

통제변수를 추가한 경우에도 분리유형의 취업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동화유형에 속한 여성들이 분리유형 및 주변화유형과 달리 주류사회에 포함되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Berry(1997)의 적응유형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분리유형에 속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관계 만족도가 높고 한국어 실력은 동화 유형에 속한 여성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는 주변화 유형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유형은 주류사회와 관계를 희망하지 않고 그저 언어습득과 같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응만 해 나가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은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과 취업효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이 취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세 번째 연구 질문을 분석한 모형의 설명력은 <표 9>의 (3)열과 (4)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p<0.001$)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제외시킨 모델 분석결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주민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p<0.0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모임에 참석할 경우 참석하지 않았을 때 보다 취업할 승산비는 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모국인 친구모임이나 취미 및 봉사활동 모임은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한 양인숙·김선헌(2011)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i.e., 모국인 친구모임, 지역주민모임)이 취업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발견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Kanas와 동료들(2011)이 독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내국인과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내국인과의 접촉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은 2009년에 비해 한국인들과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역주민모임에서 참석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전기택 외, 2013: 321). 그러나 한국인들과 취미 및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 친구 관계를 형성할 만큼 한국어를 구사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취미 및 봉사활동 모임 참여율 자체가 매우 낮고 취업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델 분석결과도 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20대 연령($p<0.001$),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P<0.05$)은 취업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 평균 가계소득은 적응유형과 취업의 관계를 분석했던 모델에서와 같이 모든 소득구간이 취업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주민모임은 한국에 적응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취업과 같은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에 따른 취업효과: 사회자본 매개효과

본 연구의 마지막 질문인 사회자본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에 따른 취업효과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적응유형, 사회자본 변수,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 <표 9>의 (5)열에 나타난 분석결과와 사회자본 변수를 누락시킨 (2)열의 분석결과를 비교한다. 만약 사회자본이 적절한 매개효과를 발휘한다면 (2)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적응유형은 (5)열에서 효과 크기가 줄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에 사회자본의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2)열에 나타나는 적응유형의 계수 값들은 (5)열의 계수 값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동화유형 1.7426 → 1.7324; 분리유형 1.1813 → 1.1771). 즉,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과 사회자본은 각각 취업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한국문화에 적응한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사회자본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이 주로 한국가족과 모국인 친구모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김이선 외(2011: 387-389)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점차 모국인 친구, 한국인 친구와 관계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데 비해, 한국인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에 적응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 외의 한국인 친구와 관계에서 자녀교육 및 취업 등에 관한 실리적인 정보를 얻기 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 친구들과 연결고리가 부족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효과에 인구통계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은 부(-)의 영향을, 월 평균 가계소득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국인 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대 여성의 경우 다른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취업할 승산비가 67.5%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대 여성의 62.24%가 자녀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미취학 자녀의 존재 및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을 젊은 여성들이 취업 할 수 없는 주요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혜원 외, 2010: 23; 김지경·조유현, 2003: 187). 한편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은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고혜원 외(2010: 23)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9.2%는 마음에 드는 일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즉,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그에 맞는 수준의 직장에 취업하기 원하지만, 해당 학력이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월 평균 소득으로 측정한 가계의 경제적 요인이다. 월 평균 가계소득이 높아질수록 베트남

〈표 9〉 사회자본 매개에 의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효과 분석

변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종속 변수	독립변수	(1) Odds Ratio (S.E)	(2) Odds Ratio (S.E)	(3) Odds Ratio (S.E)	(4) Odds Ratio (S.E)	(5) Odds Ratio (S.E)
취업 유무	적응유형					
	동화	1.5418 (.1794) ^{***}	1.7426 (.2170) ^{***}			1.7324 (.2180) ^{***}
	분리	1.0751 (.1153)	1.1813 (.1334)			1.1771 (.1331)
	사회자본					
	모국인 친구 모임			1.1813 (.1124)	1.1752 (.1153)	1.1900 (.1166)
	지역주민모임			1.5116 (.2095) ^{**}	1.5499 (.2208) ^{**}	1.5071 (.2118) ^{**}
	취미·봉사활동 모임			1.0256 (.1552)	1.0084 (.1569)	.9372 (.1476)
	통제변수					
	연령		.3272 (.0954) ^{**}		.3313 (.0967) ^{**}	.3246 (.0949) ^{**}
	30대		.6044 (.1842) ^{**}		.6039 (.1844)	.5977 (.1828)
가계 소득	중학교		.8722 (.1244)		.9126 (.1294)	.8640 (.1238)
	학력		.7803 (.1118)		.8165 (.1161)	.7645 (.1102)
	고등학교		.5123 (.1252) ^{**}		.5321 (.1294) ^{**}	.4890 (.1203) ^{**}
	대학교 이상		.7370 (.0868) [*]		.8024 (.0918)	.7142 (.0847) ^{**}
	자녀 유무		.35589 (.14762) ^{**}		.32746 (.13581) ^{**}	.35427 (.14749) ^{**}
	50-100만원		3.0132 (.11547) ^{**}		2.8624 (.10986) ^{**}	2.9911 (.11509) ^{**}
	100-200만원		4.0965 (.15683) ^{***}		3.9110 (.15010) ^{***}	4.0797 (.15696) ^{***}
	200-300만원		6.1102 (.24300) ^{***}		5.8736 (.23399) ^{***}	5.9854 (.23909) ^{***}
	300-400만원		5.9962 (.27259) ^{***}		5.5776 (.25425) ^{***}	5.7949 (.26487) ^{***}
	400-500만원		4.4105 (.21263) ^{**}		4.0634 (.19609) ^{**}	4.2479 (.20565) ^{**}
	500만원 이상					
N		2,010	2,010	2,010	2,010	2,010
LR		$\chi^2 = 15.86$, $df = 2$	$\chi^2 = 28.62$, $df = 4$	$\chi^2 = 14.15$, $df = 3$	$\chi^2 = 102.64$, $df = 14$	$\chi^2 = 123.06$, $df = 17$
Prob > chi2		0.0000	0.0000	0.0009	0.0000	0.0000
유사결정계수 (Pseudo- R^2)		0.0058	0.0399	0.0051	0.0373	0.0447

· * p<0.1, ** p<0.05, *** p<0.001

· 주변화유형 변수, 40대 이상, 초등학교 졸업 이하, 자녀 없음, 소득 50만원 미만 변수는 비교집단(reference group)으로 분석을 위해 누락시킴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취업할 확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의 원인은 부부의 맞벌이 가능성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소득 200만원 - 3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31.75%가 맞벌이 부부이며, 300만원 - 400만원 구간에서는 44.02%, 400만원 - 500만원 구간에서는 55.19%가 맞벌이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받아 들인지 약 1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어떤 적응양태를 보이는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시작했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1)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2) 적응유형의 차이에 따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효과가 다른가?”, “3)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은 취업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은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유형을 동화유형, 분리유형, 주변화유형으로 명명하고, Berry(1997)의 문화적응모델을 적용하여 유형별 특징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정책 대상 집단인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령, 현재 중앙정부에서 실행 중인 다문화가족정책은 천편일률적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 적응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정책이 다를 것인데, 풍부한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된 맞춤형 정책이 제공된다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동화유형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27.7%)은 일정 수준의 문화적응을 한 상태이며 취업과 같은 사회참여를 통해 구조적 적응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주민모임 참여 여부에 따라 취업 가능성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났던 이들에게는 한국인과 상호 호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김이선 외, 2011: 391).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들과 상호 호혜성을 기반 한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사회에서 생산적인 기능을 하는 사회자본을 가지게 됨으로써 점차 정부 정책 의존도가 낮아 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Field et al., 2000).

분리유형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39.6%)은 일정 수준의 문화적응을 한 상태이지만 사회참여를 통한 구조적 적응을 원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실제로 연구결과 가족을 제외한 한국인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2.7%가 자녀를 두고 있는데

어머니의 적응유형이 자녀양육태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동화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박형원, 2010). 따라서 우선, 어떤 이유에서 이들이 사회참여를 통한 구조적 적응을 원하지 않고 있는지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해당 지자체가 협력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화유형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32.7%)는 문화적응 수준과 사회참여를 통한 구조적 적응 의지가 모두 낮은 특징이 있다. 놀라운 것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증진을 위해 한국어 및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학습기회제공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화유형에 포함 된 여성의 절반이 한국에 거주한지 10년 이상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왜 주변화 되었는지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해당 지자체가 협력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정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의 법적근거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적응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공해 오고 있다. 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위주로 공급했는데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이 생경한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대상 집단의 범위를 결혼이주여성 전체로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집단 내에서 적응유형이 분화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결혼이주여성은 적응유형에 따라서 상이한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관련 지원정책 수립 시, 먼저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특성을 규명한 후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세부 시행계획을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모국인 친구모임, 지역주민모임, 봉사·취미활동모임 참여유무를 더미변수로 조작하였다. 사회자본을 단순히 특정 모임(네트워크) 참여유무로 측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특정 모임의 참석 빈도를 측정하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이 보유한 네트워크가 자본으로써 기능하는지 확인하는 것에 더 가치가 있다. 즉, 동화유형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특징은 지역주민모임에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얼마나 자주 그 모임에 참여하는지 측정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종속변수가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역변수의 부재로 거주지역의 실업률과 같은 지역경제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셋째, 외적타당성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타민족 결혼이주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수 있는 결과인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혜원 외.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방안: 언어·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경아. (2012).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의지 결정요인분석: 이주여성의 정책인지수준과 지역사회다문화태도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1): 381-409.
- 김병숙·안윤정·송혜령. (2010).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235-258.
- 김석준·배경희.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과 직업유무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자본 조절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4(3).
- 김선혜·양인숙.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연구〉. 34(1): 237-266.
- 김이선 외. (201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은정. (2013).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성과 부정적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5(2): 168-198.
- 김지경·조유현. (2003). “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노동연구논집〉. 26(3): 181-207.
- 김효순. (2013).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1): 327-355.
- 민인식·최필선. (2012). 〈STATA 기초적 이해와 활용〉. ㈜지필미디어.
- 박미은·신희정·이미림. (2012).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3(4): 213-244.
- 박재규. (2013). “농촌과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5(1): 5-33.
- 박진경. (2010). “한국 다문화정책의 특성과 발전방향: 다문화정책 모형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대회 및 국제학술회의〉. 171-195.
- 소라미.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 〈사회권포럼-국제결혼 이민자의 인권실태 및 문제점〉 자료집. 233-253.
-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 (2003).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옮김. 일조각.
- 유민이·임다희·조민효. (2013).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분석: 가구특성과 성별에 따른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1): 21-50.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 42(2): 72-103.
- 전기택 외.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 한승준. (2008). “동화주의모델 위기론과 다문화주의 대안론”.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통계청(<http://kostat.go.kr>).
- Alba & Nee. (1997). “Rethinking Assimilation Theory for a New Era of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826-874.
- Berry, John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 Berry, John W. Phinney, Jean S. Sam David L. Vedder Paul.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5(3): 303-332.
- Burt, Ronald. (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2): 339-365.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Diener, Ed., Emmons, R.A., Larsen, R.J., & Griffin, A.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Field, John et al. (2000). Social Capital and Human Capital Revisited. Chapter 12: 243-263.
- Granovetter, Mark.(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Sociological Theory*. 1: 201-233.
- Hwang, Ji-Yun et al. (2010). Psychological Distress Is Associated with Inadequate Dietary Intake in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10: 779-785.
- Horvat, E. M. et al. (2003). From Social Ties to Social Capital: Class Differences in the Relations between Schools and Parent Network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0(2): 319-351.
- Kao, Grace. (2004). Social Capital and Its Relevance to Minority and Immigrant Populations. *Sociology of Education*. 77: 172-183.
- Kanas, Agnieszka et al. (2011). The Role of Social Contacts in the Employment Status of Immigrants. *International Sociology*. 26(1): 95-122.

- Massey et al. (2003). "Chapter 2: Principles of Operation: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Beyond Smoke and Mirrors: Mexican Immigration in an Era of Economic Integra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7-23.
-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ECD: Paris.
- Phinney, Jean S. (1991).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A Review and Integration.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3(2): 193-208.
- Portes, Alejandro & Ruben Rumbaut.(2001). "Chapter 3: Not Everyone is Chosen" in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4-69.
- Svendsen & Svendsen. (2003). On the Wealth of Nations: Bourdierconomics and Social Capital. *Theory and Society*. 3(2): 607-631.
- Vigdor, Jacob L. (2008). *Measuring Immigrant Assimilation in The United States*. Civic Report. The Manhattan Institute.

투 고 일: 2014년 9월 12일
수 정 일: 2014년 11월 19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일

* 이혜림(李慧林):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관심분야는 정책평가, 이민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이다(hyerim0608@skku.edu).

* 조민효(趙敏孝): 미국 Georgetown University에서 정책학으로 석사학위 (MPP)를 취득하고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책학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미국 Brown University에서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관리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정책평가, 교육정책, 아동 및 보육정책, 이민정책 등이다. 최근 주요 논문들을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012), *Crime & Delinquency* (2013),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014), *Journal of Adolescence* (2014), *Journal of Hispanic Higher Education* (in press) 등에 게재하였다(chomh@skku.edu).